

〈제 59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소상공인 특별대출 100억원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을 실천하는 포용금융센터에서 특별대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 동반자가 되겠다는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1968년 창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되었던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광주은행 포용

금융센터는 개점 8개월여 만에 430여명의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게 포용금융특별대출 등을 통해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했고, 200명의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보해양조

◆ 송가인의 코로나 극복 캠페인송 '잘 될꺼야' 공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31일 오후 6시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송가인 '잘 될꺼야' 공식 뮤직비디오(M/V) with 앞새주'를 전격 공개했다. '잘 될꺼야'는 매출 감소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실직 위기에 놓은 회사원 등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송가인과 보해양조는 ‘잘 될꺼야’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독성 있는 가사와 긍정의 기운을 듬뿍 담은 노래를 통해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소방관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민철)와 소방관서(청사)의 에너지 효율증대 및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 본부에서 추진 중인 신축 소방관서(청사)에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복지편의를 위해 소방관서(청사)에 물품(가스건조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방본부는 해양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소방관서(청사) 건립 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가스냉난방기기 등을 우선 반영되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붕형 임대 태양광 발전사업과 태양광 보급사업, 연료전지, GHP기기 판매, 수소충전소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II. 광주경충 소식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선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28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층 컨벤션실에서 고용노동부 2020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했다.

본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2020.12.31.까지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특화 IT 활용 등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로 채용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채용시 최대 6개월까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되며,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은 차등화하여 지급된다.

디지털일자리사업은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충격 등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중단하고 있어,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청년은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매칭 기업에서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일자리 경험 및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참여기업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를 보조받는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충 디지털일자리사업 T. 062) 716-3423, 일경험 지원 사업 T. 062) 716-3424로 문의하면 된다.

사무국 일지(7. 27 ~ 7. 31)

7. 2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약정체결 	7. 3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근로시간 단축 우수사업장 선정심사
7. 3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승순 신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무국 내방 		

II. 광주경충 소식

〈제1490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26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정한용 텔런트 겸 배우를 초청 <텔런트 정한용이 살아온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49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과거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전남.전북 이었다. 농업국가 시대에는 잘 사는 곳이 곡창지대다. 그러나 공업입국선언을 하면서 섬유.가발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 공단 일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생산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노동 인구가 공단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숨은 일꾼은 사실상 호남사람이며 타지역에서 토착민들에게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호남향우회로 끈끈한 정을 맺으면서 타지역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1992년 대선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가 모셨던 김대중 총재는 대선 패배이후 영국으로 가시고 정한용은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

김대중 총재가 귀국 정계에 복귀를 앞두고 서울 민선시장을 당선시키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였다. 조순씨를 후보로 천거하여 김동길 선생과 함께 도와 서울시장으로 당선 시켰지만 당선 후 바로 탈당을 하여 배신감을 느꼈다. 정치는 덧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치는 독특하게 정당중심의 정치다. 미국은 당이 있어도 당대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당사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 미국처럼 대통령중심제이지만 우리정치는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민주공화국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회의원은 왕인 국민을 대신하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에 나와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나를 지배하는 사람을 뽑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문가는 각 분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1. 노사 동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7. 28 본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안건을 의결하고 노사정 협약식 개최

※ 노사정 협약식 참석자 :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 경사노위는 지난 5. 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잠정합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해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노사정대표자회의는 7. 1 잠정합의안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

- 노사정 협약은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참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p>▲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개월 연장</p> <p>▲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p> <p>▲정부는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청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p> <p>▲노동계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 협력</p>

Ⅲ. 노사 및 판례동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 극복시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들을 적극 운용 ▲정부는 업종·분야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를 적극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 추진 -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노위에서 이행상황 점검

○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며,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

○ 양 노총은 금번 노사정 협약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7. 28)

- 한국노총은 협약 이행의 속도를 강조하며 빠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금번 협약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약은 노동자의 양보, 고통 감내를 앞세운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해고금지 및 충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입장 표명

■ 민주노총은 집행부 사퇴에 따라 비대위 구성 추진

○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7. 23)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 추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 총사퇴

- 잠정합의안 추진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 김정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집행부는 사퇴 입장 표명(7. 24)

·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 추진 안건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 표명(7. 10)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대의원대회」 결과 :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해, 찬성 499명, 반대 805명으로 부결(투표 대비 61%)

○ 민주노총은 7. 27「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

- 사무총장 격인 집행위원장 및 비대위 위원은 7. 3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선출 예정

※ 민주노총 규약상 직선임원 전원 유고시 비대위가 권한을 대행하며, 비대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중앙위원회」 인준 필요

- 한편, 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는 9월 선거공고, 10월 말 후보등록, 11월 선거운동, 11말~12월 선거실시 예정